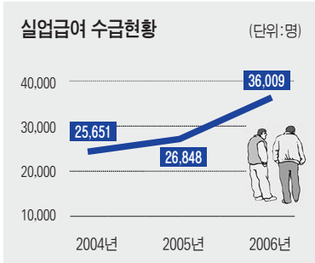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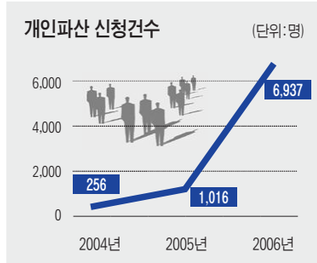
주가	환율	금리
-5.81	+1.40	-0.02
1,436.47 (코스피지수)	927.30원 (원/달러)	4.83%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08.69	(-5.58)
다우(20일)	12,463.87	(-7.45)
나스닥(20일)	2,427.61	(-1.94)
닛케이	17,047.83	(+36.79)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8.28엔	(+0.17)
유로 달러 환율	1.3187달러	(+0.14)
3년만기 회사채	5.21%	(보합)
콜금리	4.51%	(+0.01)

빚·실업·세금 '3중고' 서민가계가 무너진다

광주·전남 파산자 2년새 27배↑… 실업 급여액도 50% 증가





광주·전남지역 가계들이 늘어나는 빚과 세금, 실업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2년사이 가계 빚이 급증하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 등 서민가계가 급속히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반 가계에서도 수입은 늘지 않는 대신 자동차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부과와 공공요금 인상이 연말에 집중되면서 소비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2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가계대출 잔고는 지난 2004년 10월 7조8천406억원에서 지난해 10월 8조2천290억원, 올해 10월말 9조1천375억원으로 2년사이 16.5%인 1조2천969억원이나 늘었다. 이를 지역내 가구수로 환산하면 가구당 빚이 2004년 635만원에서 2년만에 105만원이 늘어 740만원이 됐다는 얘기다.

가계 빚이 늘어나면서 파산하는 가정도 크게 늘어나 광주지법에 소비자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11월 기준으로 2004년 256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천16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6천937건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6.8배, 2년전과 비교하면 27배나 급증했다.

고용사정 악화는 가계 주름살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실업률은 광주 4.2%, 전남 1.7%로 지난해에 비해 늘지는 않았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10%대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취업자수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1만3천여명이 줄어 부족한 일자리때문에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04년 2만5천651명에서 지난해 2만6천848명, 올해 3만6천9명으로 40.3%가 늘었고, 금액으로도 2004년 518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581억원, 올해 779억원으로 50.3%가 증가했다.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일반 가계에도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 가정마다 종합부동산세와 자동차세 등 세금 고지서가 한꺼번에 몰리고 있고 학원비 등 사교육비와 시내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도 오르고 있다.

실제로 광주의 경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면서 버스요금이 12% 가량 올랐고, 내년 초에는 상·하수도요금(7.2%~11.8%)과 건강보험 수가(2.3%), 중·고 납입금(4.0%) 등이 줄줄이 오를 예정이다.

주부 김민영씨(45·광주시 서구 금호동)는 "수입은 잘 해야 물가인상분만큼이나 오르는데 아파트를 사면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세금과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 쇼핑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갈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세금 인상은 서민가계에 더욱 치명타를 입힐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양제철 대형화재 원천 봉쇄 종합방재시스템 24시간 운영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 종합 방재시스템을 구축, 대형사고를 원천 봉쇄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제철소 전지역에 있는 화재 취약지점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화재위험을 24시간 살피고 화재수신반의 신호를 119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 초기 화재진압이 가능토록 짜여졌다.

광양제철소에는 총 567개의 화재수신반이 있는데 이중 무인화된 화재수신반이 326개이며 266개가 화재발생시 방호센터로 화재정보를 전달하지 못해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포스코는 "9개월간의 공사 끝에 완성된 종합방재시스템은 현장 화재수신반의 위치를 추적할 때 지도찾기식 시스템으로 구성해 화재 발생시 최단시간에 사건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김진영 광주일보사장(앞줄 왼쪽)과 장춘상 광주·전남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장(앞줄 오른쪽)이 16일 '지역경제살리기'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교환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1인당 빚 1,300만원

석달새 37만원 늘어

올해 9월말 현재 1인당 개인빚이 1천3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금융자산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을 상회하고 자금 잉여규모가 확대되는 등 개인의 부채상환능력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3·4분기 자금순환동향'(잠정)'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개인부채 잔액은 총 643조1천억원으로 6월말 대비 2.4% 늘어났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7월1일 기준 추계인구(4천829만7천184명)로 나눠보면 1인당 빚은 1천33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말의 1천294만원에 비해 37만원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3·4분기에는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9월말 기준 한국의 총 금융자산잔액은 6천741조6천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부채 증가율 2.4%에 비해 증가율이 더 높았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잔액을 명목 GNI(국민총소득)로 나눈 금융연관배율은 전분기(7.90)보다 상승한 8.07을 기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공동혁신도시 차질없이 개발할 것"

한우성 신임 토공 광주전남 본부장

"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랑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21일 취임한 한우성 신임 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장은 "고객가치 극대화와 지속적인 경영혁신, 직원들의 인화단결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현안사업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첨단2단계, 선운지구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임 한 본부장은 광주 출신으로 조선대 토목공학과와 한양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 1981년 토공에 입사한 뒤 전북군산사업단장, 품질관리처 기술지원팀장, 광주 수완지구 사업단장 등 요직을 거쳤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일보사 - 광주·전남 중기협연합회

'지역경제 살리기' 전략적 업무 협약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장춘상)는 21일 광주일보 16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대·중소기업 상생협의체 공동운영 ▲지역중소기업 현안 수시조사 공동실시 ▲경제활성화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경영실무강좌 등에 관해 서로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약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5년이다.

협약식에는 김진영 사장, 김동영 논설주간, 신항락 편집국장 등 광주일보 임원진과 장춘상 회장, 박래옥 광주·전남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황금주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찬교 광주·전남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정태성 광주·전남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강영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장, 정욱조 광주·전남지회 부장 등 연합회측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염홍철 중기특별위장

광주 광산업 정책수렴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광주를 방문,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의실에서 광주·전남지역 광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지난 9월 20일 취임한 염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 보완과제를 모색하게 된다.

또 간담회에 이어 염 위원장은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광산업체인 대방포스텍과 휘라포토닉스를 찾아 근로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

기아차 유럽모델 '씨드' 주행중 불

슬로바키아 딜러 행사 전시 차량

기아자동차가 유럽 전략차종으로 현지 개발·생산한 씨드(cee'd)의 시험제작 차량이 지난 1일 슬로바키아 질리나시의 고속도로 주행중 불이 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기아차에 따르면 이 차량은 양산 이전에 생산된 시험제작 차량으로 당일 슬로바키아 현지 딜러 행사 전시를 위해 이동중이었다.

기아차 관계자는 "사고가 난 차는 말 그대로 양산 전 테스트를 위해 만들어진 차로 양산용 차와는 다르다"며 "운전자는 재빨리 빠져나와 다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씨드의 주행중 화재가 연료시스템 부품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재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중이다.

기아차는 질리나시에 유럽 현지공장을 건설, 지난 7일 유럽 전략차종인 씨드 양산행사를 가졌으며 내년 한해 유럽시장에 10만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다. /연합뉴스